

'1할 포수' 한승택 "내 역할은 지키는 야구"



한승택



KIA 타이거즈 한승택이 "끝까지 가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KIA의 포수는 지난 시즌부터 화제의 자리다. 박동원의 트레이드와 FA 이적 등으로 변화가 많았던 자리. 올 시즌에는 한승택이 포수 최고참으로 안방을 지키고 있다.

9일 현재 한승택의 타율은 50타수 8안타, 0.160. 타격에서 아쉬움은 있지만 한승택은 9일 KIA가 바라는 경기를 완성했다.

이날 마운드에서는 KIA 양현종과 SSG 김광현의 맞대결이 펼쳐졌다. KBO리그를 대표하는 두 좌완의 '빅 매치'여서 눈길이 쏠렸던 경기는 KIA의 3-0 승리로 마무리 됐다.

변우혁의 선제 투런에 힘입은 양현종은 8이닝 10탈삼진 무실점의 완벽투를 선보이면서 통산 161승을 수확, '한화 레전드' 정민철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마무리 정해영은 3점차 상황에서 삼자범퇴로 이닝을 마무리하면서 통산 70세이브를 채웠다.

이날 한승택은 배터리로 완벽한 호흡을 과시했다. 양현종과 직구로 공격적으로 승부를 하며 빠르게 경기를 풀어나 한승택의 리드는 8회 마지막 순간에도 빛났다

8회 2사 2루에서 양현종이 100구째를 채웠다. 김광민과의 승부를 앞두고 정명원 투수코치가 마운드에 올라 양현종에게 교체 의사를 물었다. 하지만 양현종은 그대로 마운드를 지켰고 조구에 김광민을 중견수 플라이로 돌려세우고 8이닝 무실점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양현종은 "솔직히 자신 없었는데 승택이가 자기

김광현과 맞대결 펼친 양현종

"승택이 믿고 8이닝 던졌다"

한승택 "투수들과 호흡이 중요"

포수 방어율에 욕심 나요"

믿고 던지라고 했다. 승택이 믿고 더 던진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승택은 이날 세 번째 타석에서는 중전안타도 만들면서 상대 배터리를 괴롭혔다. 공수에서 더할 나위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 한승택. 이날 경기 전에는 심재학 신인 단장이 팀 케미스트리를 강조하면서 포수진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승택은 "8이닝 선발 투수가 던지고, 마무리가 9회를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어느 팀이나 바라는 모습일 것이다. 수비로서는 최고 경기였다"며 "현종이 형에게 개인적으로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해서 뿌듯하기도 하다. 주자 있을 때 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타도 쳐서 기분이 좋았다"고 짜릿했던 승리를 이야기했다.

포수진에 쏟아지는 시선에 대해서는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마음 고생을 할 것"이라면서도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 질문은 달라도 답은 하나다. 내가 잘하는 수밖에 없다. 항상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IA 투수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선수, 타격도 최근 페이스가 좋은 만큼 자신감 있게 경기에 나설 생각이다.

한승택은 "포수로서 투수들과의 호흡이 중요하다. 점수를 안 주고 이기면 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내가 안타를 치면 더 기분 좋지만 1번은 점수를 안 주는 것이다. 요즘 팀이 잘 되고 있어서 마음이 편해진 것 같다"며 "5월 들어 타격 흐름이 나쁘지 않다. 그 기운을 이어 수비는 물론 방망이도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4월에는 마음이 급하기도 했다. 아직 시즌 많이 남았으니까 5월 새 마음으로 하고 있다. 시즌 끝날 때 기록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시즌을 치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몇 년 동안 타격에 변화를 많이 줬다. 캠프 때 약한 것을 시즌에도 밀고 가야 하는데 중간중간 혼동이 오기도 했었다. 올해는 준비한 대로 밀고가면서 시즌이 끝나고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타석에서는 지난 시즌보다 조금이라도 수치를 올리는 게 한승택의 목표. 가장 간절한 목표는 '우승'이다. KIA 투수진과 호흡을 맞추면서 기대감을 커지고 있다.

한승택은 "장형식, 전상현, 정해영, 이준영 형은 잘 던져왔던 좋은 투수들이다. 김기훈이 제대하고 왔고 최지민도 호주 다녀와서 좋아했다고 들었는데 막상 보니까 정말 좋아했다. 경험을 더 쌓으면 좋은 투수가 되지 않을까 싶다. KIA의 미래도 밝고 기대가 된다. 목표는 무조건 팀 우승이다. 어느 팀이든 시즌 시작할 때 우승을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부상 없이 야구 하는 게 목표다. 수비에서는 포수 방어율에 욕심 나고, 타자로서는 작년보다 하나라도 더 결과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10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2022-2023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오른쪽은 동점골을 터트린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더브라워너.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10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2022-2023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오른쪽은 동점골을 터트린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더브라워너.

레알-맨시티, UEFA 챔스 4강 1차전 1-1 무승부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4강 1차전이 1-1 무승부로 끝났다.

홈팀 레알 마드리드는 10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2022-2023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 경기에서 전반 36분 먼저 1-0으로 앞섰으나 후반 22분에 실점하며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이로써 두 팀은 18일 맨시티 홈 경기로 열리는 2차전을 통해 결승에 오를 팀을 정하게 됐다.

올해 UCL 4강 대진은 레알 마드리드-맨시티, 인터 밀란-AC 밀란(이상 이탈리아)의 경기로 펼쳐진다. 이탈리아 팀들의 준결승 1차전은 11일에 열린다.

선제골은 전반 36분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터뜨렸다.

에두아르도 카마빙가가 내준 패스를 페널티 지

역 정면에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1-0을 만들었다.

반격에 나선 맨시티는 후반 22분 더브라워너가 동점 골을 뽑아내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두 팀은 지난해 UCL 4강에 이어 2년 연속 결승행 티켓을 다투고 있다.

지난해 준결승에서는 1차전을 맨시티가 난타전 끝에 4-3으로 이겼지만, 2차전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3-1로 승리하며 1, 2차전 합계 6-5로 맨시티를 따돌렸다.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해 결승에서 리버풀(잉글랜드)을 1-0으로 꺾고 우승했다.

/연합뉴스

63년 만의 우승 도전...아시안컵 축구 오늘 조추첨

63년 만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조별리그 상대가 오는 11일 베일을 벗는다.

AFC는 한국시간으로 11일 오후 8시 카타르 도하의 카타르 오페라 하우스에서 2023 아시안컵 조추첨식을 연다.

아시안컵은 24개 팀이 4개국씩 6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펼치고, 각 조 1·2위 12개 팀에 더해 3위 팀 중 좋은 성적을 낸 상위 4개 팀이 16강 토너먼트를 벌이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이번 대회 출전국

중 3번째로 높은 27위인 한국은 1번 포트에 속해 일단 조별리그에서는 강호들을 피하게 됐다.

한국과 더불어 개최국 카타르, 일본, 이란, 호주, 사우디아라베아가 1번 포트에 배정됐다.

2번 포트에는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오만, 요르단 등 중동 4개국과 중국, 우즈베키스탄이 들어가 있다.

부담이 덜한 상대를 짝하면, 한국이 통산 전적에서 3승 2무로 무패를 기록 중인 요르단과 21승 13무 2패로 압도한 중국이다.

3번 포트엔 중동 팀으로는 바레인, 시리아, 레바

논, 팔레스타인이 있고,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이 함께 들어가 있다.

4번 포트에서는 아시안컵 본선에 처음 진출한 홍콩이 최악으로 분류된다.

홍콩은 과거 인연 유나이티드를 이끌었던 윤 안테르센 감독이 지휘하고 있다.

4번 포트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각각 김판근 감독과 신태용 감독이 이끌고 있다.

특히 신 감독은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 무대까지 올랐던 지도자여서,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한 조로 묶인다면 '운명의 장난'이라 할 만하다.

이번 아시안컵은 내년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도하, 알라이안을 중심으로 8개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주FC, 광주 출신들 활약에 울었다

FC서울 원정경기 1-3 패배

윌리안·나상호·박동진 연속골



광주 출신들의 골잔치가 벌어졌고 광주FC가 울었다. 광주가 지난 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하나원큐 K리그 2023 1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3 패배

기록했다.

0-1로 뒤진 후반 5분 이희균의 슈팅이 서울 골키퍼 백중범에 막혔지만 허을이 세컨볼을 잡아 왼발로 서울 골망을 흔들었다. 광주는 허을의 시즌 2호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지만, 뒷심싸움에서 밀렸다.

공교롭게도 광주는 '광주' 출신들의 활약에 울었다.

전반 9분 광주에서 활약했던 윌리안이 공을 몰고 올라와 오른발로 광주의 골대를 가르며 선제골을 장식했다.

1-1로 맞선 후반 20분에는 18분 교체 멤버로 들어갔던 금호출신의 나상호가 광주를 울렸다. 나상호는 투입 2분 만에 황의조의 크로스를 받아

오른발 발리슛을 날리면서 시즌 8번째 골을 장식했다.

후반 41분에는 역시 광주에서 뛰었던 박동진이 움직였다.

박동진이 나상호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로 광주의 골망을 흔들면서 경기는 1-3, 광주의 패배로 끝났다.

광주를 상대로 골을 터트린 윌리안·나상호·박동진 모두 광주 유니폼을 입고 K리그 무대에 데뷔한 선수들이다.

주전 골키퍼 김경민을 대신해 이날 시즌 첫 경기를 소화한 '수문장' 이준은 전반 20분 김진아의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저지했고, 35분에는 임상형의 왼발슈팅을 막아내기도 했지만 서울의 후반 공세에 팀의 패배를 지켜봐야 했다.

광주는 이날 패배로 5경기 연속 무승(2무 3패)에 그쳤다. 승점을 추가하지 못했지만 7위(4승 2무 6패·승점 14)자리는 지켰다.

위기에 몰린 광주는 오는 13일 오후 4시 30분 홈에서 대구FC를 상대로 '달빛 더비'를 펼친다. 대구는 올 시즌 3승 5무 4패(승점 14)를 기록, 승점 차 없는 8위로 광주를 추격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